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날이 부족 쌀쌀해지는 가운데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주중(23일)에 놓여있습니다. 추상(秋霜)같은 시련에도 오상고절(傲霜孤節) 국화처럼 굳건히 견디어 마침내 모든 생명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늘 그렇듯이 농민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마냥 감시하고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작년의 벼멸구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는 '벼 깨씨무늬병'이라는 또 다른 병해가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년과 다

른 잦은 가을비까지 더해져, 황금빛이어야 할 가을 들녘은 기후변화가 던지는 무거운 경고로 물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만 해도 1만 3천 헥타르가 넘는 벼 재배 면적이 깨씨무늬병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는 전체 재배 면적의 10%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보다 5배, 평년에 비해서도 3배나 많은 수치라고 하니 그 심각성은 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벼의 잎과 줄기에 갈색 깨알 같은 병반이 생기더니,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 심지어 수매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농심은 타들어 갑니다. 특히 임차농의 경우, 임대인에게 농지 임차료를 쌀로 지급하는 관행까지 겹쳐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상기후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며, 이는 농업 현장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가장 큰 도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병해충과 기상 이변이 갈수록 빈

벼 깨씨무늬병이 던지는 경고

결국 애써 키운 알곡의 품질과 수확량까지 떨어뜨려 농민들의 피와 땀을 앗아가는 현실은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현장의 농민분들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올해 여름 밤낮없이 지속된 고온이 원인"이라며, "행정은 원론적인 이야기 대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기후 농업재해에 대한 특별 예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본 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당장의 걱정을 넘어, 미질이 떨어지고 탈곡 시 부서져 상품성이 없어지는 나락을

변해지고 강도가 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기반을 축소하려는 정책 기조는 우리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재해 인정과 피해 지원을 넘어, 예측하

기 어려운 기후 변화 속에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항구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품종 개량, 재배 기술 개발, 새로운 농업 보험 상품 도입, 그리고 기후 위기에 특화된 농업 연구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때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고통받는 우리 이웃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회윤리 전공
· 희년학회 연구위원
· 주거권기독교연대 공동대표

희년을 '안식일 관련법'의 차원에서 살펴보자. 구약 이스라엘 역법(曆法)에서 제7일이 안식일, 제7년이 안식년, 그리고 제7안식년인 제49년의 이듬해인 제50년이 바로 희년이다.

제7일인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안식해야 한다. 제7년인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곧 안식년의 두 가지 규정은 '토지 안식'과 '부채 탕감'이다. 그리고 제50년인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안식하게 해야 하고, 가난 때문에 토지와 주택과 자유를 잃고 가족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희년에는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된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년이 시작되는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회복된다.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고, 희년에 가난한 이웃에게 그가 잃어버린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회복된다.

마지막으로 땅과의 관계는 안식년과 희년에 토지를 안식하게 함으로써 회복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깨진 후에 멸망했다.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과의

세 가지 관계의 회복

곧 희년의 다섯 가지 규정은 '토지 안식'과 '토지 회복'과 '주택 회복'과 '자유 회복'과 '가족 회복'이다.

이처럼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큰 틀에서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이 모두 '안식'과 '자유'라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울러 '안식일 관련법'으로 통칭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안식일 계명을 주해하면서 안식년과 희년도 함께 포함하여 주해한 것이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 20:8)는 계명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다.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안식일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그만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마땅하다. 안식일의 정신만 중시하고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무시한다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럼 희년이 왜 중요하지 살펴보자. 안식년과 희년을 함하여 넓은 의미의 희년으로 통칭하는데, 이 넓은 의미의

관계를 깨뜨렸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으며, 탐욕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에도 토지를 경작하여 토지의 안식을 가로막아 땅과의 관계를 깨뜨렸다.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린 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 평화를 잃고 멸망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돈을 섬기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는커녕 착취하고 있고, 피조 자연을 보호하기는커녕 파괴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길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희년 실천이다. 희년 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희년 실천이 바로 평화의 길인 것이다.



청소년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바르게 쓰기 위해 평소에는 잘 보지 않은 사전을 찾아본다. 오타나 문맥을 위해 여러 번 읽어보고 띄고 과정을 거친다. 인쇄되어 나온 글을 보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나 오타를 발견하곤 한다. 그때는 조금 부끄럽기도 한다. 50년 넘게 써온 한글인데 아직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다. 새로운 출입말들도 많이 등장해 당황할 때도 많다. 또 외래어가 우리말처럼 통용될 때도 있다. 한글 '혼민정'은 세종 25년 곧 서기 1443년에 완성하고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서기 1446년에 반포 되었다. 579년이 지나고 한글날을 보내며 젊은 이들의 표기법을 나무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알아가고 공감하며 적응하며 살자 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

와 외래어 신조어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외래어) 10개다. 1. 인싸 : 무리에서 잘 섞이고 유행에 민감한 사람. 2. 버즈(Buzz) :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것. 3. 스라벨 : Study-Life Balance, 공부와 삶의 균형. 4. 갓생 : 부지런히 자기계발하며 사는 삶. 5. 꾸꾸 :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꾸밈. 6. 렌트프리 :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사람. 7. 오마카세 : 세프 추천 요리 코

· 길거리 공연(Busking). 6. 치팅데이·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는 날(Cheating Day). 7. 스포일러·영화·드라마 결말을 미리 떠올리게 하는 것(Spoilers). 8. 위케이션·여행지에서 일하는 것(Workation). 9. 메타버스·가상세계, 온라인 속 또 다른 세상(Metaverse). 10. 거버넌스·조직이나 사회를 운영 하고 관리 하는 것(Governance). 11. 도플갱어·나와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

가 되면 어느 순간 정적이 된다. 그것이 문화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창조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전 세계인이 소통하려는 움직임에는 적극적 이라고 한다.

또 어차피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없어질 것도 아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보자. 한글로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주신 좋은 글을 만들어 주신 세종대왕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외국인에게 한글날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또 자랑하면서 소개해 보자! Hangeul Day, Korean Alphabet Day라고!



최용남
·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 예정통합 진남노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선명한 미래, 2 저자

"신조어 얼마나 아세요?"

스. 8. 바이브 : 분위기, 느낌. 9. 플렉스(Flex) : 소비나 과시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10. 밈(Meme) :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패러디 문화가 있다. 외래어를 신조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한다. 1.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2. 데자뷰·전에 겪은 듯한 기분(Deja Vu). 3. 빈티지·오래됐지만 멋스러운 것(Vintage). 4. 워너비·닮고 싶은, 되고 싶은 대상(Wannabe). 5. 버스킹

(Doppelganger). 12. 코스프레·만화·영화 캐릭터 옷을 입고 흉내내는 것(Cosplay). 13.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Bucket List). 14. 버라이어티·여러 가지가 섞인 예능 프로그램(Variety). 15. 데칼코마니·똑같이 닮은 모습(Decalcomani). 나는 위와 같은 현상을 바람직하다고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의 변화를 나쁘다고만 할 생각도 없다. 함께 살아야 한다. 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1 후원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창대교회 표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성경)하게 하소서' (골3:10) ·주일오전 1부9:00 ·주일오전 2부11:00 ·주일오전 3부1:00 ·주일오전 4부3:00 ·수요영양회7:30 ·세배기도회9:00 62360 광주광역시 광안구 우산천동길 60(광안동) 대표전화: 064-1217 FAX: 062-5683	대한예수교장로회 문흥제일교회 표어: '예수를 바르고 공유는 교회' ·주일오전 1부7:30 ·주일오전 2부11:00 ·주일오전 3부7:00 ·주일오전 4부7:00 ·수요영양회7:30 ·세배기도회5:00 61127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15번길46(문흥동) 대표전화: 062-266-8025 FAX: 062-266-8026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벤엘교회 표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 ·주일오전 1부7:00 ·주일오전 2부9:00 ·주일오전 3부11:00 ·주일오전 4부1:00 ·수요영양회 1부10:30 ·수요영양회 2부7:30 ·세배기도회5:30 61610 광주광역시 북구 군포로170번길 8(황산동) 대표전화 367-1004 FAX: 361-1004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새순교회 표어: '오직사랑 안에서 (마태복음24:12) ·주일오전 1부8:00 ·주일오전 2부9:30 ·주일오전 3부11:30 ·수요영양회7:30 ·수요영양회(원)5:00 61029 광주광역시 북구 모듬로 34(일월동40-25) 대표전화 062-972-9595 FAX: 062-972-9596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유일교회 표어: '주여 자유하게 하소서' (골3:15, 사40:4, 살2:15) ·주일오전 1부9:00 ·주일오전 2부11:00 ·주일오전 3부1:30 ·주일오전 4부7:00 ·수요영양회5:00 61747 광주광역시 남구 봉우로 129번길 7 대표전화: 062-653-6161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표어: 'THE 미라클' ·주일오전 1부9:00 ·주일오전 2부11:00 ·주일오전 3부1:30 ·주일오전 4부8:00 ·세배기도회5:20 61073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로100 1008-3 대표전화: 062-951-1191, 1291 FAX: 062-955-4821
기독교한국침례회 아시아침례교회 표어: '네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22:37) ·주일오전 1부9:00 ·주일오전 2부11:00 ·주일오전 3부2:00 ·수요영양회7:30 ·세배기도회7:30 ·세배기도회7:30 62444 광주광역시 광안구 송도길4-1(도산동) 8(도산동) 대표전화: 062-943-9322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표어: '주여 자유하게 하소서' (골3:15) ·주일오전 1부7:30 ·주일오전 2부9:00 ·주일오전 3부11:00 ·주일오전 4부2:00 ·수요영양회7:30 ·세배기도회5:00 61061 광주광역시 북구 마곡로 45-16 대표전화: 062-74-9004	한국기독교장로회 풍암계림교회 표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골3:15) ·주일오전 1부11:00 ·주일오전 2부2:00 ·수요영양회7:00 ·세배기도회5:00 62049 광주광역시 북구 봉곡로38번길 4-17 (봉암동) 대표전화 656-0676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소망교회 표어: '하루를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주일오전 1부9:00 ·주일오전 2부11:00 ·주일오전 3부1:00 ·주일오전 4부3:00 ·수요영양회7:30 ·수요영양회(원)8:00 ·세배기도회5:00 61024 광주광역시 북구 상동로 18(영선동 209-165) 전화: 062-972-1004 FAX: 062-972-1005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있는교회 표어: '예배를 회복하자'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8:00 ·주일 낮 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 오후 예배1:30 ·수요영양회7:30 ·수요영양회(원)9:30 ·수요 영 예배7:30 62303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완로 9(번길 39-3) 062-956-0291 FAX: 956-0290	대한예수교장로회 월광교회 표어: '시류는 흘러도 성도는 변함없다' (사40:8) ·주일오전 1부7:30 ·주일오전 2부9:30 ·주일오전 3부11:30 ·주일 오후7:30 ·수요영양회7:30 ·세배기도회5:00 ·세배기도회9:00 62025 광주광역시 서구 영화로 3(번길 117) 대표전화: 062-375-0400 FAX: 062-375-6187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사랑교회 표어: '빛이 있으면 주여 이세 회복하게 하소서' (골3:15) ·주일오전 1부7:00 ·주일오전 2부9:00 ·주일오전 3부11:00 ·주일오전 4부7:00 ·수요영양회7:00 62222 광주광역시 광안구 창곡로 95번길 36 대표전화: 062-954-8800 FAX: 062-954-8808	새날학교 교육목표 1. 삶을 경이하는 삶 2. 성결과 나눔의 삶 3. 세계를 변화시키는 삶 4. 다문화에 포용하는 삶 교장 이현영 목사 62457 광주광역시 광안구 평화로 29 대표전화: 1062-943-8935 FAX: 062-943-1634	대한예수교장로회 거성교회 표어: '주여 자유하게 하소서' 1. 생명이 자유하게 하소서 2. 생명이 자유하게 하소서 3. 생명이 자유하게 하소서 ·주일오전 1부9:00 ·주일오전 2부11:00 ·주일오전 3부2:00 ·수요영양회7:30 ·세배기도회5:30 62308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완로 11(번길 24) 대표전화: 062-191-9891 FAX: 062-191-9895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무등교회 표어: '오늘은 광복일! 내일은 세계를! (행1:8) ·주일오전 1부9:00 ·주일오전 2부11:00 ·주일오전 3부2:00 ·수요영양회11:00 ·세배기도회7:30 62305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완로 10(번길 22) 대표전화: 062-951-5004, 956-1007	대한예수교장로회 입면교회 표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공동체' ·주일오전 1부9:00 ·주일오전 2부11:00 ·주일오전 3부12:30 ·수요기도회7:00 ·세배기도회4:50 57513 전남 곡성군 입면 마해리길 21-2 대표전화: 061-362-6010	기독교한국침례회 엘림침례교회 표어: '하루를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골3:15) ·주일오전11:00 ·주일오전2:20 ·수요 영 예배8:00 ·세배기도회5:00 ·수요영양회9:00 ·수요영양회(원)9:20 ·수요 영 예배2:00 광주광역시 북구 송곡로 10-15 (송곡동 814-7) TEL: 062-94-1096, 910-667-1096